

# 자랑스런 한국인이 만든 '디즈니의 변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론 클레멘츠·존 머스커 감독 '모아나 2'**

“디즈니가 디즈니 했네.” 영화 ‘모아나 2’를 보고 난 첫 소감이 그랬다. 필자에게는 손녀가 둘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기쁨으로 낱알이 들여다보고있는 중이다. 아가들이 4-5세가 되면 부쩍 공주놀이에 빠지게 된다. 이 무렵부터 한 3년 동안 공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어공주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공주의 영향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놓은 배경에는 디즈니사의 영향력이 크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형적 서사에는 얼굴이 희고 금발머리에 허리가 잘록하며 하늘하늘 연약한 팔을 지닌 서구적 미인 여성과 사악한 여성 또는 마녀가 등장하여 갈등을 만들어낸다. 그들 간의 갈등은 백마 탄 멋진 서구적 미남 왕자가 등장함으로써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는 곧 여성의 최종 목표는 왕자와 같은 남성과 결혼하여 신분상승을 이루는 데 있다는 듯 재생산되어 공급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편견에 대한 반성은 ‘모아나’ (2016)로부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남태



론 클레멘츠·존 머스커 감독 '모아나 2'.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공

평양의 폴리네시아인 모아나는 작은 키에 적당한 근육과 구릿빛 피부,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모험심 가득한 캐릭터로 형상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서구적인 기준의 획일화된 미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디즈니프린세스 라인을 모아나는 부정하고 죽장의 딸로서 자신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며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주체적 캐릭터다. 지금까지 만연된 영웅서사에 여성을 대입시킨 것은 놀라운 발전이었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남성과의 사랑을 통해 신분상승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층위에서 주체성을 가지며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 남주주역인 마우이도 근육질의 잘생긴 서구식 미남과는 거리가 멀다. 짧은 목에 덩치 큰 뚱뚱한 몸을 문신으로 채우고 굵슴머리로 그려낸 캐릭터는 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모아나 2’의 기대는 이러한 8년 전의 의미에 가산

점을 미리 두고 관람을 시작했던터라 스토리와 그래픽, 인물묘사 등 디테일을 즐기며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다. 소녀 모아나는 한층 성숙미가 넘친다. 그간 태어난 세 살배기 여동생 시메이가 귀엽기 짝이 없다. 남태평양의 모투누이 섬에 사는 모아나는 바다와의 교감이며 카누조정 및 항해술로 보나 웅맹함이며 부족에 대한 사랑 및 범인류애 등의 자질이 타우타이(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타우타이가 된 모아나는 섬에 닦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조들의 예시에 따라 저주를 풀기 위해 항해에 나선다. 오래 전 폭풍의 신 날로의 저주로 인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고대의 섬 ‘모투페투’를 찾고 그동안 저주로 인해 교류가 막혔던 태평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과의 교류의 길을 열기 위해 항해에 나서는 것이다. 선원은 선실에서 야채를 가꾸는 힘없는 노인, 겁쟁이 돼지 푸아(하와이어로 돼지), 멍청한 수탉 헤이헤이(폴리네시아어로 수탉), 말쑥쟁이 등등 다섯 친구들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신반인 마우이가 조력자로서 합류하게 된다. 이들의 앞날에 빌런들과의 파란만장한 방해가 설렘없이 전개됨은 물론이다.

키워드는 ‘길’이다. “길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은 없지 않다. 항상 다른길이 있다”는 메시지가 대사 중에 귀에 박힌다.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이며 청년들에게도 귀에 속속 박히면 좋을 듯하다. ‘모아나(Moana)’는 폴리네시아어로 ‘바다’를 뜻한다. ‘마우이(Maui)’는 뉴질랜드에서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폴리네시아 전 지역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다. 신화에 의하면, 섬들을 수면 위로 건져올려 하와이 섬을 만들었고 때로 태양을 조절해서 낮을 길게 하는 능력자였다.

영화를 보고 나서려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외국인 세 여성이 객석이 비워지자마자 엔딩 뮤직에 맞춰 춤을 추고 스크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들이 부여하는 흥겨움에 겨워 필자도 그들을 위해 자정해서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금급했다. 이들은 영화의 무엇을 즐겼을까? 그녀들의 관심사는 캐릭터였다. 그 중 한 친구는 수탉 헤이헤이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도 했다.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재미있는 것은, ‘모아나’의 중요한 캐릭터 디자인을 한국인 김상진 씨가 디자인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2014), ‘겨울왕국’(2013)의 캐릭터 일부를 맡아했는데, 디즈니가 변화를 꾀한 주역 중 하나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 역사의 무게



취재수첩

윤준명  
취재2부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대학시절 역사를 전공하면서 교수님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역사를 활자로 접하게 되면 가벼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학도라면 역사를 배울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고통, 기쁨과 슬

픔에 공명하며 무게를 함께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였다.

수많은 전쟁과 혁명의 기록들은 숫자로 요약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던 이들의 외침과 절규는 쌍따옴표 안에 갇힌 짧은 문장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그 숫자와 문장 뒤에는 피와 땀,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삶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는가. 이름 없이 스러져 간 이들, 정의와 자유를 외치다 생을 마감한 이들의 삶과 처절한

염원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복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위기’ 등을 운운하며 45년 만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날 밤, 서울에 북한 특수부대라도 파견이 됐던가. 계엄군이 국회를 둘러싸고, 서울 상공을 순회하는 군 헬기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갑차의 모습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기자로서는 이 광경이 가져다준 충격과 두려움을 쉬이 떨칠 수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 후, 일상에서 당연히 누리던 자유와 안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5년 전으로 회귀한 듯했다. 살아보지도

못한 그 시절의 공포와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날의 광주를 살던 이들은 또 오죽했을까. 취재 중 만난 한 어르신은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1980년 5월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40년이 훌쩍 넘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많은 광주시민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들의 과거는 다시 현재의 공포와 아픔으로 소환됐다.

비통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권력유지를 위해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방식을 답습해 한국사회

의 오랜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리려 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적 사명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방조하고, 역사의 무게를 거부했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우리가 과연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과거의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 단죄해야 할 때다.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